

지역 소식통

정읍시, 논 이모작 직불금 ha당 50만원 순차적 지급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을 23억원을 지급한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능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갑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2회 추경예산 7251억원 확정

부안군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원 증액된 7,251억원을 편성하여 1일 부안군의회 분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안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등 제1회 추경 성립 후 내시된 보조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재정적 효율성을 증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1회 추경시 편성했던 지방채 260억원에 보통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 발행하지 않고 준비로 재원을 변경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에 큰 눈... 제설작업 '총력'

제설 장비 15대 동원 신속 대응 나서

1일 오전 정읍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읍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초동 조치에 나섰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덩크와 굴삭기 등 제설 장비 15대를 동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한 곳곳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펼쳤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를 통해 출퇴근

길 교통혼잡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출근길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겨울철 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제설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 극복 위한 노력, 성과로 빛을 받다"

권익현 부안군수, 12월 공감의 날 행사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부안군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의 사자성어인 '선죽제인'의 각오로 위기극복을 위해 일선여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군정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위기 속에서도 관계보다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일선여 공직자가 함께 해줬다"며 "마실죽제를 비롯한 행사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온택트 방식 전환, 역대 최고액 5,703억원 국가예산 확보, 노을대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성과가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푸드플랜 완성의 단초가 될 로

컬푸드 직매장 텃밭할매 개장, 공항마리나 항만 개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등의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국도 30호선 확포장 국가계획 반영, 한국해상풍력 분사 부안이전,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등 민선 7기 5대 핵심 비전을 키워가기 위한 사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오늘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 다가오는 내일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거침없는 포효로 소멸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며 "생존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안군은 국

산 및 소비확대 우수사례 공모전과 통계발전 공모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장학재단 발전 유공으로 부안 김산명주 이영식, 고려정형외과의원 김일호, (주)코센 김택환씨가 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이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부안군 자체 감사 유공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지연 농촌지도사, 동진면 이종길 주무관, 백산면 김민영 주무관 상서면 김기훈 주무관이 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통계조사, 전라북도 테마 제안 공모 등에 공로를 인정받아 군민, 공무원 5명이 표창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김해숙 작가의 '비비각시' 선정

거액의 원고료로 화제를 모은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당선작이 김해숙 작가의 '비비각시'로 선정됐다

1일 고창군 신재효문학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문인들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이병천·정지아·방민호·박영진·김종광 위원)의 심사결과 초대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으로 김해숙 작가의 '비비각시'가 선정됐다. 상금은 5000만원이다.

'비비각시'는 동리정사 출신 여성 소리꾼인 '허금파'에 대한 이야기로 진체선에 이어 여자 관소리 명창의 선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녹여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김해숙 소설가는 197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를 졸업했다.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누룩을 깎다'로 등단했으며 작품 '어쩔 수 없다'로 2017년 한국소설가 협회 신예 작가로 선정됐다.

관소리 소설을 집대성한 '한국의 셰익스피어' 신재효 선생을 배출한 고창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고창을 소재로 하거나 관련 인물 등과 관계된 창작품 중 미발표작을 대상으로 지난 10월까지 약 8개월간 작품을 공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1일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챌린지에 전라북도 단체장중 최초로 동참을 선언했다.

'100만인 서명운동'

권익현 부안군수, 보편적 평생학습 챌린지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는 1일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챌린지에 전라북도 단체장중 최초로 동참을 선언했다.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은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군민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서은숙 부안시 진구청장의 지목으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온라인 릴레이 이어지게 되었다.

부안군은 지난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행복군민의 동반자로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동참선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는 보편적 평생교육의 실현을 지속해나가기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최진봉 부안 중구청장,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강일준 군산시장, 이준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각각 지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지역소멸 위기 극복 선제적 대응 나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3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 출입기자단, 한국식생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고창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지정되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경제 대응방안과 산업구조 변화,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을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는 ▲지역 인구감소 실태와 대응방안(국토연구원 최예슬 박사) ▲인구감소시대, 고창군 경제 발전 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현 박

사) ▲지역산업 여건변화와 기업투자(산업연구원 배진원 박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창군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계획(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는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좌장)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 ▲전북연구원 서환석 박사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께서 참석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지역소멸, 인구감소시대에 위기에 직면한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고창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